"새 구장 직관에 행복" 광주FC 전용구장 시즌 첫 관중 맞이

경기장 입장부터 응원까지 방역 준수

전체 관람석 1만여석 중 20%만 입장

"새로 지은 구장에서 시즌 첫 홈경기 관람이라니 흥이 절로 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후 첫 광주FC 홈 경기가 열린 16일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FC 축구전용구장.

팬들은 이날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를 지켜보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새로 지은 전용구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기도 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올 시즌 첫 관람을 기념했다.

팬들은 경기장 입장 전후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경기장 출입구 2곳에서는 체온측정 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작성하고 입장했다. QR코드에 익숙치 않은 일부 관중들은 안내 요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일부 팬들은 QR코드 대신 출입 일지를 직접 손으로 작성했다. 이름·출입 시간·측정 체온·연락처 등을 기록했다.

모든 팬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관중석 곳곳에 배치된 방역수칙 안내 요원 8명은 팬들의 착용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구단 측은 접이식 관중석의 등받이를 1~2칸씩 띄어놓은 채 접어놓아,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했다. 팬들도 관중석 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화장실·매점을 이용할 때도 서로 접촉을 조심하는 모양새였다.

유니폼·머리띠·응원 구호 수건 등을 갖춘 팬들은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전반전 선취골을 허용하자 탄식이 나왔지만, 마스크 착용·고성 자제 등을 안내하는 방송이 흘러나오자 곧바로 잠잠해졌다.

'육성 응원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응원 수칙이 거듭 안내됐지만, 선취 득점 허용 5분 만에 나온 만회골에 곳곳에서 함성·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팬들은 점수가 날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제 자리에서 뛰며 환호했다. 응원가·응원 구호 등은 구단 측에서 미리 마련한 녹음본이 재생됐다.

가족과 함께 경기 관람에 나선 초등학교 1학년 민준빈(8)군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경기를 탁트인 곳에서 직접 볼 수 있어 기쁘다. 마스크가 답답하긴 하지만 '모두의 약속'인 만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유니폼을 입고 응원에 나선 김모(29)씨도 "새로 지은 구장에서 시즌 첫 홈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어 팬으로서 너무 행복하다"며 "코로나19 속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깨우는 것은 프로스포츠인 것 같다.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관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16일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FC 축구전용구장에서 관중들이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완화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래 이날 처음으로 광주FC 축구전용구장에서 홈 경기가 열렸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단계 완화로 지난 1일 프로축구 경기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이후, 이날 첫 홈 경기가 치러진 광주FC 축구전용구장에는 전체 좌석의 20%인 2000여 석 입장이 허용됐다.

서선옥 기자

"어쩌면 바뀐다"…NC-키움, 1위 놓고 격돌

제대로 만났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선두 자리를 놓고 정면 격돌한다.

두 팀은 18일부터 NC 홈 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2연전을 갖는다. 1위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경기다.

5월13일 이후 한 번도 선두를 내놓지 않고 있는 NC는 시즌의 반환점을 돌자마자 최대 위기에 놓였다.

48승2무30패의 호성적을 내고 있는 NC이지만 현재 페이스는 썩 좋지 않다. 구창모, 박민우 등 투타 주축이 빠지면서 다소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7패에 머물렀다. 지난 주말 LG 트윈스전에서는 홈에서 올 시즌 첫 3연전 스윕패까지 당했다.

NC가 주춤하는 동안 2위 키움은 야금야금 격차를 좁혔다. 지난 주말에는 마침내 턱밑까지 압박했다. 5~6경기까지 벌어졌던 두 팀의 간격은 어느덧 0.5경기까지 줄었다.

강력한 선발진을 앞세운 NC와 달리 키움은 중간계투진이 강점이다. 특히 1이닝씩을 확실히 책임지는 안우진-조상우의 존재는 가히 위협적이다.이들이 8회와 9회를 막아주면서 선발투수들의 어깨 또한 가벼워졌다.

첫 경기 선발은 드류 루친스키(NC)와 한현희(키움)다. 다승 단독 선두(11승) 루친스키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만 한현희 또한 8월 두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77(13이닝 4실점)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5연승으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린 LG 트윈스(48승1무36패)와 5위 KIA 타이거즈(44승37패)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린다.

4위 두산 베어스(46승2무36패)와 7위 롯데 자이언츠(40승1무38패)는 부산(18~19일)과 잠실(20~21일)을 오가며 4연전을 소화한다.

3위 LG부터 7위 롯데까지의 승차가 5경기에 불과해 연승과 연패가 겹치면 순위가 요동칠 수도 있다.

한편 두산은 1승만 보태면 역대 두 번째 2500승 고지를 밟는다. 삼성은 첫 2만3000타점에 29개를 남겼다. '조선의 4번타자' 이대호(롯데)는 11타점을 더하면 통산 6번째 1200타점 달성자로 기록된다.

김시우, 윈덤 챔피언십 3위…3년 만의 우승 놓쳐

3년 만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눈앞에 뒀던 김시우(25)가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김시우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시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640만달러) 4라운드에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우승자 짐 허먼(미국)에게 3타 뒤진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6년 이 대회 우승자인 김시우는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정상을 노렸지만 뒷심 부족에 다음을 기약했다.

2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했기에 더욱 아쉬운 결과였다.

임성재(22)는 최종합계 16언더파 264타로 공동 9위에 자리했다. 임성재는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2개로 5언더파를 쳐 톱10에 턱걸이 했다.

허먼은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로 빌리 호셸(미국)의 추격을 1타차로 뿌리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통산 3승째다.

김시우가 15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시지필드 CC에서 열린 미 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 3라운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청 펜싱팀, 대통령배 우승 '금빛 찌르기'

여일부 '에뻬' 단체전서 계룡시청 누르고 우승

전남도청 펜싱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펜싱대회인 대통령배에서 정상을 제패하며 올시즌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에서 끝난 제60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여일부 에뻬 단체전 결승에서 계룡시청을 40:32로 완파하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올 시즌 첫 대회로서 유진실, 김향은, 박소형, 유단우가 출전한 전남도청은 대회 8강전에서 강원도청을 43: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경기도청을 만나 32:31 짜릿한 한점차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오른 전남도청은 계룡시청을 상대로 금빛 찌르기를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펜싱은 남일부에서도 훨훨 날았다.

김승재, 김기현, 신현석, 박경호가 출전한 해남군청은 남일부 에뻬 단체전 준결승에서 익산시청에 37:45로 아쉽게 패하면서 동메달에 만족했다.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실전 감각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겨내고 값진 메달을 획득한 전남 펜싱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청 카누팀도 제16회 백마강배 전국카누대회에 출전해 임성화 김소현이 k2 200m 은메달, 이진솔 이민아까지 합세해 4명이 함께 출전한 k4 200m에서 동메달, 이민아가 k1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승호 기자

"메시, 바르셀로나에 '떠나고 싶다' 의사 전해"

"이번처럼 결심 강하게 보인 적 없어"

세계적인 공격수 리오넬 메시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이별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브라질 미디어 '에스포르테 인터라티보'는 17일(한국시간) "메시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패한 후, 구단과 위기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즉시 떠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15일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2-8의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며 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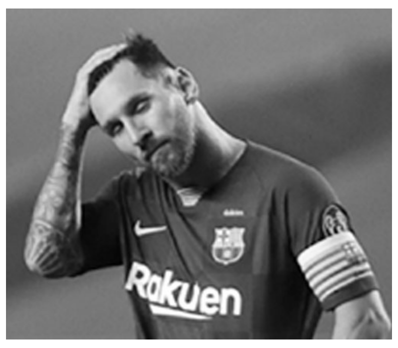
메시는 무기력한 패배에 넋이 나간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일부 언론에서 이 경기가 끝난 이후 메시의 이적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에스포르테 인터라티보'는 "메시가 구단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시가 이번처럼 팀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강하게 보인 적은 없다.

메시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25골 21도움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20골-20도움을 달성하며 이름값을 했지만 정작 팀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우승을 넘겨줘 3연패에 실패했다.

메시의 새 행선지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금2·은1

광주체육중 태권도부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50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중부 라이트급 1위 체육중 3학년 김가현 학생은 준결승에서 지난 대회 결승 상대인 새본리중 선수를 5대2로 제압했다.

이어 결승경기에서 부천동여중 선수를 상대로 10대6으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가현 학생은 지난 7일 강원도 태백에서 막을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라이트웰터급 1위 체육중 3학년 김지연 학생은 준결승 경기에서 상대를 18대6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상대에게 2회전까지 6점차로 끌려가다가 특기인 내려차기를 연속 성공시켜 짜릿한 역전승을 통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여중부 미들급 2위 체육중 3학년 황은진 학생은 결승에서 5대2로 앞서 가다가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상대에게 연속득점을 허용하면서 6대5로 역전패하며 아쉬운 은메달에 머물렀다.

서선옥 기자